

범종교·시민사회 “황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연석회의’ 2일 출범... 대불청·우리신학研 등 28개 단체 참여

임명 항의서한 청와대 전달
“헌법보다 교회법 우위라는
총리 후보 국가적 불행 자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종교편향 이력
에 관한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후보 지명 철회를 위해 공
식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 범종교인 연
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6월 2일 서울 청
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
을 열고 총리임명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황 후보
는 헌법체계를 부정할 정도의 지나친 종교
적 신념으로 정교분리원칙과 공직자 종교중
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박근
해 대통령은 즉각 황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

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황 후보가 공무원
신분으로 신정일치 사회를 지향하는 홀리클
럽과 성시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 법
무부 정책기획단장이라는 핵심요직서 기록
교민영교도소 재단법인 아카페 이사를 맡아
법무부 복음화를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며
극심한 종교편향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연석회의는 “황 총리는 법무부 장
관 청문회 당시 수입료 기부약속을 실질조
수준의 교회헌금으로 대신했다”며 “헌법
수호 및 국민 봉사는커녕 자신의 출세와 안
위만을 위한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로 받
아들이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
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길 바란다. 국익
과 사회통합보다 사익과 사권을 우선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는 6월 2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범 기
지회견을 열고 총리임명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라며 “박 대통령은 역사적 편견과 이념·
종교적 편향이 도를 넘은 황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
는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 낭독 후에는 전준호 대한불교청년
회 회장, 지미자 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처
장, 광성근 정의평화민중가톨릭행동 상임
대표가 대표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황 후보자가 국민
통합과 소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전준호 회장은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이라며 “개인의 종
교적 신앙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지미자 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
처장은 “극단적 종교 성향의 황 후보는 통
합과 소통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종교계 갈등을 심화시켜 하나 된 사회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석회의에는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
교재가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신학
연구소, 정의평화민중가톨릭행동, 해방신
학연구소 등 총 28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지난 5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임명저지범종교인연석회의 1차
모임을 갖고 6월 1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
회 7개 종단에 동참을 제안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원폭2세 기본권 보장 지원 체계 마련해야”

원폭특별법추진위, 1일 토론회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
자폭탄 투하 70년을 맞아 당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
연대회의(이하 원폭특별법추진위)는 6
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촉
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목
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홍근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원폭피해자법
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정록 새누리당 의
원 등 일반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번도 자
국인 원폭피해자 규모를 조사한 바 없
다”며 “원폭2세환우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 집단 내서 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대표는 “원폭피해자 1세는 물론 2세환
우 지원 대책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
련돼 있지 않다”며 “원폭피해자 자녀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나요

문화사업단, 3일 애니 유튜브 공개
8~14일 1주년 퀴즈 이벤트도 진행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6
월 3일 정기 브리핑에서 ‘템플스테이 패
밀리 브랜드 ‘아생여당’의 런칭 1주년을
맞아 아이, 생생, 여여, 당당 캐릭터가 애
니메이션으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애니메이션 영상
은 3일 템플스테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됐다.

애니메이션 공개와 함께 ‘아생여당’
런칭 1주년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6
월 8일부터 14일까지, 템플스테이 공식
온라인 계정을 통해 템플스테이 애니메
이션과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가 공개된
다. 당첨자는 6월 17일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6월 3일 공개한 아생
여당 템플스테이 애니메이션 영상.

재가연대 ‘내홍’ ... 결국 돈이 문제

3일 임시총회서 前 사무총장 횡령 놓고 갈등

법인 돈이 개인 통장서 오가
목적 기금도 인준 없이 사용
“7기가 6기 공격해” 설전도
결국 위원회 구성해 확인키로

정운선 前 사무총장의 횡령 의혹을 놓고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근, 이하
재가연대)가 내홍에 휩싸였다. 올해 역점
사업으로 불교계의 재정 투명화를 위한 모
니터링을 내세운 재가연대의 내부 횡령 의
혹과 갈등은 스스로에게 빼어난 실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가연대는 6월 3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
께빌딩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임시 총회
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
정 △임원 선출 △2015년 사업계획 △기
타 안건 등을 논의했다. 갈등이 폭발한 것
은 그간 논란이 돼 온 前 사무총장의 부
당회계 처리였다.

인수인계를 진행한 7기 집행부에 따르
면 前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7400여 만
원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주현 前 불교
아카데미 이사는 보고를 통해 “재가연대
통장(4개)에서 前 사무총장 개인 통장(3
개)으로 7천여만 원이 90여 회에 걸쳐 출
금됐다. 활동비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다

고 하는데 지출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종자연 출연기금·청
소년 출조사 지원금·자정센터 기금 등 목
적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인준없이 사용됐
다”고 밝혔다.

이어 “현 집행부는 7400만원을 반제발
아야 하고, 소명 자료를 근거로 확인되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2014년
결산보고에서 자정센터 기금 2300만 원이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
인해보니 2만 원밖에 없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한 前 사무총장
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인수위
의 주장이 ‘악의적 모함’이라고 못 박은
前 사무총장은 “재가연대에서 나온 돈
은 모두 재가연대로 돌아갔다. 이체 내역
도 전부 설명했다. 목적기금 사용도 상임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항
변했다.

회원 간의 설전도 이어졌다. 김동건 前
상임대표(4기)는 “이 사안은 전임 집행부
전체의 잘못임에도 사무총장 한 명에게 모
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7기가 6기를 공
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前 사
무총장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재가연대를
고발하면 결국 누워서 침 뱉는 형국이 된
다”고 주장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김형남 공동대표는 “법인 통장의

돈이 개인 통장으로 오갔다. 이에 대한 증
빙이 없다. 본인은 급여와 활동비 명목이
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의처리”라
면서 “잘못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근 상임대표 역시 “돈이 없다고 회
원들과 논의한 적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주먹구구식으로 단체를 운영해서도 안된
다. 6, 7기의 갈등은 아니다”면서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재가연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회적 공동대표는 사퇴를
예고하기도 했다. 우 공동대표는 “문제가
진행 논리로 이어진다면 이 모임을 지속해
야할 이유가 없다”면서 “뺏고 가자는 식이
면 이 자리를 빌어 공동대표직을 사임하겠
다”고 밝혔다.

회외가 장시간 이어지자 일부 회원들은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전우희 총회회장은 전·현직 감
사 및 대표 등으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의결했다. 조사위원
회는 6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발표하
게 된다.

한편 총회 후에는 ‘사찰재정 투명화 모
니터링 출범식’이 이어졌다. 사찰재정 투
명화 모니터링(단장 전우희)은 종단이 오
는 7월부터 시행하는 예산 30억 이상의 사
찰 재정을 공개하는 사찰재정투명화와 관
련, ‘투명화’ 검증 및 감사를 위한 모니터
링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성민·박아름 기자



독도에 올려져진 부처님 범음

민족 수호 성지 독도에 부처님 범음이 올려져
졌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대표적인 불
교문화예술로 꼽히는 영산재가 처음으로 독도에서 봉행됐다. 태고종 동원사 영산재보존회는 광
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9일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에서 영산재를 봉행하고 세계평
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지난 2007년 독도 영산재가 계획됐으나 기상 악화로 올랐던 입도가
불가능해 취소되던 8년만에 성사됐다. 신성민 기자

“수명연장 시도 월성1호기 폐쇄하라”

조계종 환경위, 원전 재가동 관련 성명 발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이하
환경위)는 6월 4일 월성 원전 1호기 재가
동 관련 성명서를 공개했다. 환경위는 사
전검증과 안전대책 없이 수명연장 시도
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환경위의 요구사항은 △월성1호기 즉
각 폐쇄 △스크리1호기 및 2호기 폐쇄 △30
년 이상 노후원전 운영 금지법 제정 △신
규원전설치 중단 및 원전개발 축소 △신

재생에너지 전환 등 5개 항목이다.
환경위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로 들며
“30년 넘은 노후 원전으로 인한 핵사고는
인류가 핵 발전을 지속하는 한 반복될 것”
이라며 “유럽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25년간 약 50개의 원전을 폐쇄한 반면 우
리나라는 원전 개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중장대한 사고 위협성을 심각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마음속 피는 꽃이 당신의 부처님입니다”

덧없는 속삭임, 차 한 잔의 기쁨, 5분의 명상... 송광사 승가대학장 덕조 스님이 불일암에서 띄운 작고도 섬광 같은 깨달음의 순간들

마음꽃을 줍다

화제의
신간

덕조 스님 글·사진
232쪽 | 12,900원

생각이 단순하면 마음이 깊어진다고, 기도한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진다고 스님 특유의 따뜻하고 겸허한 향기로 풀어내는 기도의 단상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가 읽어도 편안하고 자
연스러워서 좋습니다. 이해인 수녀 | 《마음꽃을 줍다》가 불일암에서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독자가 자신의 인생
에 더 깊이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현각 스님

덕조 스님 | 법정 스님의 만성좌로, 법정 스님께서 머무시던 불일암
에 실며 수행하고 있다. 1983년 송광사로 출가하여 송광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대면에서 계율학을 공부했다. 전 서울 길상사 주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 현 순천 송광사 승가대학장으로
후학을 지도하며 정진하고 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

“누군가 미워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괴롭진 않나요?”
나에게서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의 기적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 본래 모습 그대로 반짝이며 살라

Good Citizen

틱낫한 | 유희란 옮김 | 288쪽 | 값 12,000원